

작은 목표는 없다: 에르네스토 코피뇨 박사의 삶

시성을 위한 과정에 있는
1899년 6월 5일 출생한 에르네스토 코피뇨 박사의
Scepter 출판사에서 출간 된
새로운 자서전을 읽는 것이 지금부터 가능합니다.

2020-6-6

“나의 삶에서 몇 가지 기억들을 고집
어내자면, 저는 감당할 수 없이 오래
지속되며 중요한 엄청난 두 시기로
그 기억을 나누겠습니다. 첫 번째 기
억은 1899년부터 1953년 사이의 기
억인데, 확실하지 않은 목표로 기나
긴 준비의 여정에 대한 것입니다. 저
는 그 당시의 기억을 되돌려보면 평
탄치 않은 확실한 방도의 더 좋은 길
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.”

이 말은 Scepter 출판사에서 최근에
발행된 에르네스토 코피뇨 박사의 새
로운 자서전에서 나오는 도입부의 말
입니다. 오랜 세월 동안 부인 클레멘
시아를 돕고 4명의 자녀를 양육하면
서도 피곤한 기색 없이 병자들을 도
와주고 영양실조에 걸린 마야 어린이
들 위해 일을 한 과테말라의 유명한
소아과 의사의 인생을 작가인 토마스
A. 맥도넛은 자서전을 통해 이야기합
니다.

1954년 그는 이제 막 그의 고향인 과테말라에서 오푸스데이의 사도직 업무를 시작한 사제를 만났습니다. 종종 가톨릭 믿음에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분위기에 적대적이었던 그는 그 사제를 만난 이후 이듬해에 그의 인생에서 감각적으로 필요했던 영적인 차원이 더 완전히 개발되었습니다.

아래는 그의 영적인 삶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을 때 기술한 글 중에서 짧게 발췌한 것입니다:

과테말라 시민 전쟁이 발발하기 전, 에르네스토는 1954년 6월 8일 북 캘리포니아에 있는 듀람의 듀크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된 그의 아들인 호세 에르네스토를 보러 미국으로 긴급한 여정길에 올랐습니다.

“저는 골치가 아픈 순간에 과테말라를 떠났습니다. 비통 속에서 저는 제 아내와 아이들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.”

“듀크에서 저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. 과로? 향수병? 알게 됩니까. 분명한 것은 제 아들이 혼란에 빠졌고 그 아이가 받은 진단은 심각한 것이었습니다.”

“저는 혼자였습니다. 그곳에는 그 누구도 저를 위로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. 신문에 보도되는 저의 나라 과테말라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는 뉴스를 보면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. 그 비통은 제 마음에 못을 박은 것처럼 차갑고 무자비했습니다.”

에르네스토는 그의 걱정들을 미사 중에 예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. 1954년 당시에 듀람에는 가톨릭 성당이 오직 2개 밖에 없었습니다. 성 십자가 성당은 그나마 더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.

“겉으로 보이는 것은 변함이 없었지만 내면은 부유한 것으로 장식되었습니다. 저는 그날 미사에 참례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. 눈물이 제 눈에

서 솟구치게 나왔고 얼굴을 적셨으며 제 시야를 가렸습니다. 그 눈물을 통해서 저는 제대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실물 크기의 그림을 보며 묵상했습니다. 그분께서는 저를 위해 못 박히셨고 가슴에 창이 찔린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저를 감싸 안아주고 싶어 하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.”

“멈추지 않고 흐르는 눈물은 더 정화시켜줬고 제 가슴에 박힌 못은 점점 녹게 되었습니다. 주님의 몸인 성체를 받아 모실 시간이 다가왔을 때, 저는 이미 침착한 상태였습니다. 다시 용기가 났습니다. 저는 주님께서 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. . . 그리고 정말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. 제 아들은 회복했고 저는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. 저는 집으로 돌아가 오후스데이를 알아보고 주님께서 저를 부르고 계셨음을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. 왜냐고요? 제가 했던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떤 대

상을 위해 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”

.....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
from [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
jageun-mogpyoneun-eobsda-
ereuneseuto-kopinyo-bagsayi-salm/](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jageun-mogpyoneun-eobsda-ereuneseuto-kopinyo-bagsayi-salm/)
(2026-2-22)